



JTBC 금토극 '아름다운 세상'

현실 속 ~ 빼뺏아 분노할 수밖에 없는 드라마 학교폭력

JTBC '아름다운 세상'
MBC '특별근로감독관 조장풍'

모방범죄 유의하고 폭력 정당화는 안 돼 '신고하면 해결' 메시지 분명히 전달해야

불길한 징조도, 불안한 예감도 없던 익숙하고 평범한 아침이었다. 아들 선호(남다름 분)가 옥상에서 떨어져 혼수상태란 얘기를 듣기 전까지는.

JTBC 금토극 '아름다운 세상' 속 박무진(박희순)-강인하(주지현) 부부가 예고도 없이 맞닥뜨리게 된 이날은 픽션이지만 동시에 학교폭력 피해 자녀를 둔 부모가 겪은 현실이기도 하다.

이야기일 뿐이라는 것을 알고 봐도 분노할 수밖에 없는 학교폭력 소재 드라마는 꾸준히 나온다. 최근에만 해도 '아름다운 세상' 뿐만 아니라 MBC TV 월화극 '특별근로감독관 조장풍' 등 복수의 작품이 학교폭력 현실을 그렸다.

특히 '아름다운 세상' 속 학교폭력은 범죄 묘사부터 학폭 피해자와 가해자, 학부모와 학교 관계자 등 주변 인물들 태도까지 현실을 쏙 빼뺏었다.

가해자인 준석(서동현) 아버지인 학교 재단 이사장인 오진표(오만석)은 선호의 사고가 학교 이미지 추락으로 이어질까 전전긍긍한다. 교감 역시 인화가 다른 학생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는 것

조차 꺼리며 진상을 파헤치기는커녕은 폐하는 데 일조했다.

경찰도 명확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선호의 자살미수라고 결론지으려 하고, 준석 외 가해자 학부모들도 침묵하면서 오히려 동네 집값 하락을 걱정하는 적반하장 태도를 보인다. 가해자들은 "장난 좀 친 거였는데"라며 자신들이 저지른 일의 무게를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한다.

'특별근로감독관 조장풍' 속 선우(김민규)가 당한 폭력 역시 수위가 심각하다. 피해자가 되려 가해자로 몰리고, 교사 조진갑(김동욱)은 선우를 구하려는 과정에서 폭력교사라는 누명을 쓰고 교단을 떠난 과정만 봐도 성인 조직의 범 죄 못지않다.

이렇듯 학교폭력 현실을 그대로 반영한 드라마들에 시청자들은 각각 학생, 학부모, 교사 입장에서 분노한다. 고통스러운 과정에는 공감하고, 권선징악의 결말에는 충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통쾌함을 느낀다.

그러나 관계자들은 드라마가 학교폭력을 담을 때는 공감 기능 외에 더 많은

부분에서 조심해야 한다고 주문한다.

조정실 학교폭력피해자가족협의회장은 14일 "피해자가 가해자로 몰리는 에피소드 등은 오히려 아이들에게 모방범죄 여지를 줄 수 있다"라고 우려했다.

그는 "상스러운 말 등으로 피해자를 유하게 만들어서 '쌍방 피해'로 가게 되면 피해자가 오래 피해를 봤더라도 같이 처벌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다. 그런 걸 상세하게 재현하면 모방 범죄를 부를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학교폭력을 신고하면 보호받을 수 있고 문제가 해결된다는 메시지도 충분히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조 회장은 강조했다.

그는 "아무리 애써도 권력 앞에선 안 된다"라는 메시지로 가면 폭력이 정당화된다"라며 "학교폭력을 소재로 하는 드라마라면 '죄를 지으면 언제라도 벌을 받는다'라는 메시지를 분명히 줘야 한다"라고 했다.

현직 교사 임모(33·여) 씨도 "현실은 잔혹하고 학교폭력에 대한 처벌도 그리 세지 않다"라며 "드라마에서라도 학교폭력위원회를 통해 정의가 구현되고 가해자 처벌이 강화되는 모습이 그려져서 현실도 개선이 되면 좋겠다"라고 공감했다. /연합뉴스

광주MBC 라디오, 7월부터 양림동 팽귤마을에 '오픈 스튜디오'

광주MBC가 오는 7월부터 남구 양림동 팽귤마을에 '오픈 스튜디오'를 열고 라디오 방송을 한다.

광주MBC(사장 송일준)와 광주남구청(정장 김병내)은 최근 남구청에서 양림지구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성공추진과 공예 특화거리, 역사문화마을 활성화를 위한 운영 협약을 가졌다. <사진>

광주MBC는 오는 7월1일부터 양림동 오픈 스튜디오에서 '놀라운 3시'(연출 박진아, 진행 김태일, 정혜정)와 FM '정오의 희망곡'(연출 김귀민, 진행 박혜림)을 진행한다. 오픈 스튜디오에서는 방문객들이 생방송을 직접 관람하고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다.

인기 트로트 가수들이 매주 출연하는 '놀라운 3시'는 트로트를 구수한 전라도 사



투리로 개사해 불러보는 '와파! 사투리 따 자 게임, 넌센스 음악퀴즈 등 직접 청취자 라 소리 따라' 코너 등이 있다. 자 참여하는 코너가 다양하다. '정오의 희망곡'은 청취자 일일 DJ, 문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방탄소년단 새 앨범 '페르소나' 아이튠스 세계 86개국 1위

그룹 방탄소년단의 새 앨범이 세계 86개 지역 아이튠스 차트 1위를 휩쓸었다.

13일 소속사 빅히트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방탄소년단이 전날 발표한 미니앨범 '맵 오브 더 솔 : 페르소나'(MAP OF THE SOUL : PERSONA)는 공개 직후 미국, 캐나다, 영국, 브라질, 싱가포르, 인도, 일본, 대만 등 세계 86개 지역 아이튠스 '톱 앨범' 차트 정상을 석권했다.

또 앨범 타이틀곡 '작은 것들을 위한 시'(Boy With Luv)는 미국, 캐나다, 러시아, 브라질, 싱가포르, 인도 등 67개 지역 '톱 송' 차트 1위를 차지했다.

특히 방탄소년단은 미국 아이튠스 '톱 앨범' 1위를 비롯해 '톱 송' 차트에서도 '작은 것들을 위한 시'(Boy With Luv) 1위, '메이크 잇 라이트'(Make It Right) 3위, '홈'(HOME) 4위, '소우주'(Mikrokosmos) 5위, '페르소나'(Persona) 6위, '디오니소스'(Dionysus) 7위, '자메 뷔'(Jamais Vu) 8위 등 전국이 '톱 10'에 올랐다.

국내 차트에서도 멜론, 엠넷, 벅스, 지



니, 네이버뮤직, 소리바다, 플로, 바이브, 올레뮤직 등 7개 음원사이트 1위를 석권했으며 수록곡 전국 10위권 줄 세우기를 했다.

유튜브에 공개된 타이틀곡 뮤직비디오 역시 2시간 52분 만에 1천만뷰, 5시간 2분 만에 2천만뷰를 돌파하며 한국 시간 최단 시간 기록을 세웠다.

한편 그룹 방탄소년단 컴백 영향으로 음원사이트 멜론 모바일 앱이 지난 12일에

이어서 13일에도 접속 장애가 일어났다. 카카오가 운영하는 멜론은 이날 오후 2시 50분께부터 모바일 앱 접속 오류가 발생했으며 오후 4시 5분께 복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전날에도 방탄소년단 새 앨범 '맵 오브 더 솔 : 페르소나'(Map of the soul : Persona)가 공개된 시간인 오후 6시부터 1시간 넘게 모바일 앱이 접속되지 않아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었다. /연합뉴스

TV프로그램

15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SBS
6	00 KBS 뉴스 광장	00 생방송 아침이 좋다 1~2부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SBS 뉴스 10 2019 마스터스 골프
7	50 인간극장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용왕님 보우하사(재)	00 SBS 뉴스 10 2019 마스터스 골프
8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생방송 오늘 아침	00 KBC 모닝 730 40 강남스캔들
9	30 KBS 뉴스	00 비켜라 운명(재) 40 그녀들의 여유만만	30 930 MBC 뉴스 45 기본 좋은 날	10 좋은아침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40 지구촌 뉴스	50 특별근로감독관 조장풍(재)	10 SBS 뉴스 20 KBC 생활뉴스 30 살맛 나는 오늘
11	00 다큐 공감(재) 50 UHD 한식의 마음(재)	00 국민 여러분(재)		00 꾸러기 탐구생활 30 요리조리 맛있는 수업
12	00 KBS 뉴스 12		00 12 MBC 뉴스 25 특별근로감독관 조장풍(재)	00 SBS 12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50 3.1운동 100주년 특별기획 남도 해방을 외치다 55 KBC특집토론
1	00 네트워킹기획 문화산책 50 연중기획 -빛고를 행복아카데미	10 트레킹노트 세상을 걷다 스페셜	35 침착한 주말 X 마리텔 V2 55 2시 뉴스 외전	55 닥터 365
2	50 공감다큐, 사람(재)	00 KBS 뉴스타임 10 생생정보 스페셜		00 뉴스브리핑
3	10 전라도 매력청(재)	00 자동차부착식 위키 2 30 TV 유치원	25 꼬마돌도도 2 55 뽀뽀뽀 모두야 놀자	
4	00 사사건건	00 그녀들의 여유만만(재)	25 뽀뽀뽀 모두야 놀자 스페셜 55 아이돌 타임 프리파라	00 2019 한국민영방송대상 우수상 수상작 활동사진, 100년의 파노라마
5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도그래피	00 영화가 좋다(재)	25 빠샤 메가드 55 오매! 전라도	00 SBS 오뉴스 45 KBC저녁 뉴스 55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일이(재)
6	00 6시 내고향	00 KBS 경제타임 30 2TV 생생정보	50 용왕님 보우하사	55 법률 365
7	00 KBS 뉴스 7 40 우리말 겨루기	50 원손잡이 아내	30 MBC 뉴스데스크	00 생방송 TV블로그 꿈지락 55 SBS 8 뉴스
8	30 비켜라 운명아	30 글로벌24 55 육탄방의 문제아들	55 스트레이트	35 KBC 8 뉴스 55 생활의 달인
9	00 KBS 뉴스 9			
10	00 가요무대	00 국민 여러분	00 특별근로감독관 조장풍	00 해치
11	00 오늘밤 김제동 40 저널리즘 토크쇼 J(재)	10 안녕하세요	10 광주MBC 스페셜 신 인물로드	10 동상이몽2 너는 내운명 1~2부
12	35 KBS 뉴스 45 이웃집 찰스(재)	35 비바 K리그	10 스포츠 다이어리 25 특별근로감독관 조장풍(재)	30 나이트 라인

EBS1

05:00 왕초보 영어	11:20 세계테마기행(재)	17:30 로보가 폴리
05:30 세계견문록 아틀라스	12:00 EBS 정오뉴스	18:00 생방송 특!특! 보니하니1~5
06:00 한국기행(재)	12:10 극한직업 스페셜	19:00 제로니모 스티븐의 모험
06:20 세계테마기행	13:00 다큐 오늘	19:30 EBS 뉴스
07:00 레이디마그	13:10 최고의 요리비결 <토마토소스와 토마토 우삼겹 된장찌개>	19:50 다문화 고부 열전 스페셜
07:30 고고디노 공룡탐험대	13:40 다큐 시선	20:40 세계테마기행 <세상 맛진 동남아 고원 기행 1부 다리가 있는 풍경 태국 상클라부리>
08:00 당동명 유치원1~2	14:30 꼬마히어로 슈퍼잭	21:30 한국기행 <장터에서 놀아보자, 한판 1부 한 달에 세 번, 통리에서>
08:30 띠띠뽀 띠띠뽀	15:00 마사와 곰 스페셜	21:50 EBS 다큐프라임
08:45 방귀대장 뽀뽀이	15:15 탐험 구조대	22:45 글로벌 아빠 찾아 삼만리
09:00 뽀로로와 노래해요	15:45 강철소방대 파이어로보	23:55 기획특강-지식의 기쁨
09:15 뽀로로 뽀로로	16:15 책과 팡	24:50 세계의 드라마
09:30 원더볼즈	16:30 방귀대장 뽀뽀이(재)	
09:40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16:45 당동명 유치원1~2(재)	
10:30 한국기행(재)	17:15 마사와 곰	
10:50 최고의 요리비결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4월 15일(음 3월 11일 壬午)

<p>36년생 다양하게 세분화되면서 체계가 서러라. 48년생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할 것이다. 60년생 큰 것만을 바라다가 작은 것 마저 놓친다. 72년생 양호한 결과가 나올 것이다. 84년생 다소의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영향력이 있느냐의 관점이다. 행운의 숫자 : 80, 79</p>	<p>42년생 행운의 기회가 다가오고 있으니 확실히 잡아라. 54년생 불길한 기운이 보이니 조심해야겠다. 66년생 육식을 가려내지 못하고 함께하는 고통이 크다. 78년생 한 치 앞을 내다 볼 수 없으니 담담은 금물이다. 90년생 조심심이 지나치다면 위축된다. 행운의 숫자 : 35, 19</p>
<p>37년생 괴로움이 사라지면서 평온함이 깃든다. 49년생 일단, 수용하는 것이 이익이다. 61년생 충족시키기에는 너무도 미약한 진로에 놓여있다. 73년생 주관이 분명하다면 흔들림이 없을 것이다. 85년생 우여곡절 끝에 가까스로 이루어진다. 행운의 숫자 : 15, 84</p>	<p>43년생 마무리 단계에서 정제할 수이다. 55년생 약간만 뒤를 돌아본다면 이해하게 되리라. 67년생 숨이 가쁘도록 뛰어다녀야 할 바쁜 날이다. 79년생 갈구해 왔던 바가 실현 될 것이다. 91년생 결정적인 순간에 중요함을 놓칠 수도 있는 운수이다. 행운의 숫자 : 21, 08</p>
<p>38년생 취약점을 보완해야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느니라. 50년생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야만 난국을 풀 수 있을 것이다. 62년생 선수를 잘 가린다면 위기를 넘길 수 있을 것이다. 74년생 거의 완벽한 형태이다. 86년생 꼭이 유를 따져 보아야 한다. 행운의 숫자 : 59, 78</p>	<p>44년생 혼란스러울 때 조언자가 나타나는 동세이다. 56년생 재복이 자라하니 진중하게 대응하면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다. 68년생 결정적인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80년생 심사숙고 해야만 한다. 92년생 효용 가치를 극대화 할 수 있는 정점에 놓여있다. 행운의 숫자 : 55, 27</p>
<p>39년생 바탕이 좋다면 절반의 성공은 보장 받은 셈이다. 51년생 큰 것만을 바라다가 작은 것 마저 놓친다. 63년생 생 시간만 낭비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75년생 김홍이 혼재하니 방심해서는 아니 되느니라. 87년생 타산지식으로써 분별기가 되어 줄 것이다. 행운의 숫자 : 29, 83</p>	<p>45년생 기반이 견고하니 아무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 57년생 현재, 진행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간다면 얻는 바가 많을 것이다. 69년생 변화의 추구가 절실하다. 81년생 애를 먹겠다. 93년생 희망의 징후가 점진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니 기대해도 된다. 행운의 숫자 : 08, 77</p>
<p>40년생 한계가 드러날 것이다. 52년생 효과까지 감안한 후에 진행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길 것이다. 64년생 점점 관심을 끄는 일이 생길리다. 76년생 방심하다가가는 역장이 무너질 수도 있느니라. 88년생 시비를 가리기 전에 수습부터 해야 하는 마당이다. 행운의 숫자 : 70, 51</p>	<p>34년생 길조가 넓은 국면으로 확대 되어가는 형상이다. 46년생 분수에 맞아야 감당할 수 있다. 58년생 경사스런 일로 인해서 축제 분위기에 싸여 있다. 70년생 똑같은 상황이 계속 될 전망이다. 82년생 옛 것에 연연하지 말고 새로운 것을 찾아라. 행운의 숫자 : 95, 50</p>
<p>41년생 충분히 의사 전달을 해야만 하는 시점이다. 53년생 성취할 가능성이 농후하니 본격적으로 시도해도 된다. 65년생 아무런 문제도 없다. 77년생 지금 처리하지 않는다면 차이가 크다. 89년생 필요하다면 소급해서 적용해도 아무 탈이 없느니라. 행운의 숫자 : 99, 07</p>	<p>35년생 원대한 계획으로 임해야 값진 수확을 할 것이다. 47년생 다방면으로 고루 안배 하는 지혜가 절실하다. 59년생 번거롭더라도 자신이 직접 행함이 마땅하다. 71년생 숨겨진 화를 조심해야겠다. 83년생 용도에 부합해야만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48, 21</p>